

삼성, 이태리에 자동차 LCD 수출

Magneti Marelli에 계기판용 9인치 ... IT 위주에서 자동차로 시장 확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이태리의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 Magneti Marelli와 디스플레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Magneti Marelli에 2010년 말부터 자동차 계기판용 9인치 LCD(Liquid Crystal Display)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3.5-10인치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게 된다.

또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와 터치스크린패널도 공급할 예정이다.

윤진혁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부사장은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저의 부품 공급기업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어 IT 위주에서 자동차용 프리미엄 디스플레이로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Magneti Marelli는 페라리, 마세라티를 생산하는 피아트그룹을 비롯 유럽 자동차기업에 계기판, 서스펜션, 배기 시스템 등을 공급해 2008년 54억유로(약 10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01>